

김종직의 초기시에 담긴 ‘애민의식’ 재론 -‘사의식(士意識)’의 일환으로서-

구슬아*

- I. 서론
- II. 민사의 심리적 밀착과 실천 강령의 제시
- III. 민생 안정의 주체로서 사의 존재의의
- IV.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회당고(悔堂稿)』 등에 수록된 김종직의 초기시를 대상으로, 그의 애민의식이 즉자적 공감의 차원을 넘어 대자적 사의식의 발로로 이어지는 성과를 추적한 것이다. 김종직이 10대에 밀양 등지에서 수학하던 시기, 영남의 민은 잦은 자연재해로 인해 정주(定住)와 생업 영위에 고통을 겪었고, 여기에 더해 수취제도의 맹점으로 인한 이중고까지 감내해야 했다.

김종직은 민의 질고에 깊이 밀착하고 진정성 있게 공감하는 자세를 확장하여, 그러한 질고가 초래된 이면의 문제, 즉 수취와 구휼을 포함한 제도적 문제와 리(吏)·지방관의 무관심 등 계급적 문제에 주목하였다. 특히 민에 가장 밀착해 있는 ‘사’인 지방관이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민생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실천적 차원에서 제기하였다.

김종직은 ‘사’가 민의 생존본능을 지켜줌은 물론 그들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존재임을 명시하고, 그것이 일방적 시혜가 아닌 상보적 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제시하였다. 즉, 김종직의 애민의식은 민의 삶에 대한 면밀한 공감과 비판적 시화라는 즉자적 차원에서 나아가, 민을 통해 능동적 애민의

* 계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주체로서 사의 역할과 존재의의를 구체적으로 발현하는 대자적 사의식의 구축으로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애민시의 내적 전통에 새롭게 기여하였다.

핵심어: 김종직, 애민의식, 애민시, 회당고, 백성, 민, 사의식

1. 서론

이 연구는 점필재 김종직(估畢齋 金宗直, 1431~1492)이 수학기부터 사회 초까지 창작한 초기시를 대상으로 그의 ‘애민의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그가 민과의 밀착을 통해 대자적으로 ‘사의식(士意識)’을 형성해 나갔음을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의 가문은 꽤 오래도록 ‘민오(民伍)’에 섞여 있었던 데다,¹⁾ 김종직 역시 1459년(세조5) 대과에 급제하여 서울로 올라가기 전까지 외가인 밀양(密陽), 아버지 김숙자(金叔滋)의 임지였던 개령(開寧)-고령(高靈) 등지에서 수학하면서 지역의 여러 민생 현장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김종직은 로컬리티적 정체성과 민에 대한 남다른 이해를 작품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15세기의 문인으로 평가받아 왔으며,²⁾ 특히 그가 지방관을 역임하는 동안 지도지 편찬·공납 문제 해결 등 구체적인 대책으로써 민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이해의 성과를 드러내었음이 밝혀져 왔다.³⁾ 물론 이러한 면모가 다른 문인들과 차별화된 김종직만의 애민의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로컬리티적 정체성이나 애민의식이 강화되지는 않을 터, 먼저 김종직의 애민의식이 어떤 내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1) 김종직, 『彝尊錄』 上, <先公譜圖 第一>, “我金氏, 自高麗時, 淪於民伍者甚久.”

2) 김성규, 『15世紀 後半 士大夫文學의 몇 가지 傾向-成倪·金宗直·金時習의 現實主義의 詩文學에 關하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92면; 이희목, 『估畢齋 金宗直의 密陽 관련 詩에 대하여』, 『한문학보』 9, 우리한문학회, 2003, 51~54면; 정경주, 『조선조 禮樂文明과 점필재 金宗直의 위상』, 『점필재 김종직과 그의 젊은 제자들』, 인문사, 2011, 77~79면.

3) 이원걸, 『金宗直의 풍교 시문학 연구』, 박이정, 2004, 120~121면; 이원주, 『估畢齋研究』, 『한국학논집』 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79, 12~15면.

잘 알려져 있듯, 김극기·이규보 등 여말선초의 ‘신진사류’라 불리는 문인들은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 민생의 현장에 들어가 민의 소박하고도 건강한 삶에 대한 진정성 있는 동조와 애정 어린 시선을 시화한 바 있다. 나아가 민이 처한 경제적 궁핍과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실상을 상세히 포착해 내고, 그 원인으로 각종 수취제도의 문제를 거론하거나 관리의 안이함과 탐욕 등을 비판하는 ‘애민시’의 문학적 전통을 축적해 온 바 있다.⁴⁾ 이러한 작품은 15세기에 들어 현실반영의 측면에서 더욱 구체성을 얻게 되었는데, 김종직과 대별되는 정치적 행보를 보인 서거정 역시 병가를 내고 시골집에 돌아가 있을 때 가혹한 세금과 부역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그들에게 연민을 표하는 가운데 위정자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낸 시편을 다수 창작하였다.⁵⁾

이상의 개략적 흐름을 토대로 비평적 관점에서 고려말~15세기까지의 문인들이 보여준 애민의식을 정리해 보면, 첫째, 민의 삶을 향한 진심 어린 연민, 편견 없는 관찰과 공감 등 감정적 거리의 차원, 둘째, 관풍찰속의 목적에서나마 민의 질고에 대한 포착과 현실적 고발의 차원, 셋째, 질고의 원인을 둘러싼 거시적 분석과 해결에의 의지 등 계급적 성찰의 차원에서 서로 다른 지향과 수준을 보이는 듯하다. 시기적 특성상 계급적 차원의 반성과 미안함, 혹은 평등을 향한 시선으로 나아가는 조선후기의 애민의식⁶⁾과

4) 김극기의 경우 『동문선』에 수록된 <田家四時>, <宿鄉村> 등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 <전가사시>의 세 번째 수 말미에 “苟可趁公費, 私廬安肯留?”와 같이 농민들의 고통을 초래한 수취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이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간략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말았다는 점에서 애민의식의 초기적 한계를 보였다. 이규보는 <聞國令禁農餉清酒白飯>(『동국이상국집』 후집 권1) 등의 사례와 같이 민정은 도외시한 채 사치를 일삼는 호협(豪俠), 경상(卿相) 등을 지목하여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민이 겪는 현실적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등, 더욱 진전된 애민의식을 보인다.

5) 서거정은 <織婦行> 등의 시를 근거로 김종직에 비해 관념화되고 명분에만 치우친 애민사상을 보여준다고 평가되어 왔지만(이원걸, 앞의 책, 138~139면.) 심절한 애민의식을 드러낸 시편 역시 다수 창작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途中書所見> 4수(『四可詩集』 권2)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밖에 잦은 비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積雨連旬, 爲患甚大, 昨稍開霽, 入夜復作, 勢甚劇, 不能不有感于懷, 曉起悵然有作>(권8), <田家行>(권29), <田父嘆>(권40) 등은 여말선초의 시는 물론 김종직의 애민시에 못지않은 사실적 시화를 보여준다.

6) 조선후기 애민의식에 대해서는 김대중, “‘작은 존재’에 대한 성호 이익의 “감성적 인식”, 『대동문화연구』 6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애도의 정치학』, 『한국고전연구』 3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참조.

는 차이가 있겠으나, 그들의 존재를 포착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들의 진심을 쉽게 폄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해결 의지를 포함한 반성적이고도 구체적인 성찰까지 나아가는 작품은 매우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草木生山澤	초목은 산택에서 절로 나는 것이니
天地之公物	이 세상의 공공의 물건이거늘
小民獨何辜	백성은 과연 무슨 죄가 있길래
亦不蒙其渥	그 혜택을 입지 못한단 말인가?
(…)	(중략)
嗚呼我民生	아아! 우리 가엾은 백성들이
何以得生恩	어찌하면 국은 입을 수 있을까?
我今聞此語	농부의 말을 듣고 나서
中夜獨嗚咽	밤 깊도록 홀로 흐느끼네

-<토산 촌가에서 농부의 말을 기록하다[菟山村舍, 錄田父語]>(『사가시집』권4)

牛疲馬斃人力勞	(아전들의 독촉으로) 마소도 지쳐 쓰러지고 사람도 피곤하니
誰能秉耒耕春臯	그 누가 쟁기 들고 밭을 갈 수 있으랴?
我爲棠陰宣化者	나는 주상의 교화 선포하는 관찰사로
目不親睹心忉忉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고 마음만 울적해하네

-<벌목행[伐木行]>(『허백당시집』권9)

인용한 작품은 각각 서거정과 성현(成愰)이 지은 장편고시의 결사 부분이다. 서거정은 시의 앞부분에서 거듭된 흉년에도 아전들에게 가혹하게 납세독촉을 받던 민이 산으로 숨어들어 빨감을 주워다 팔아 연명하지만, 권세가에서 벌목을 금지하며 폭행까지 해 끝내 식구들과 먹고 살길이 없어지는 비참한 몰락의 과정을 시화하였다. 이어 민생과 관련하여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모순이 고발될 법한데, 서거정은 권세가에서 어찌 이익을 좇아 나쁜 짓을 저지르는지[胡爲逐小利, 不仁至此極] 관념적으로 비판한 뒤, 위정자로서 상념에 잠기며[君子尙節義, 見此欲嘔噦] 미안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린다. 또 다른 시에서는 민의 고통의 원인을 조물주에게서 찾고, 자신은 지식인으로서 민의 처지를 대신 시화하여 하늘에 하소연하고 싶다고 말할 바 있다.⁷⁾

성현의 시는 그가 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하던 1483~1484년 사이에 창작한 것이다. 그 역시 추운 겨울, 아전들의 독촉을 받아 땀과 핏방울을 차림으로 토목공사에 쓰일 나무를 베고 옮기는 백성들의 괴로운 작업 현장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관찰사로서 걱정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 이전까지는 백성들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미처 몰랐다[茫茫五雲隔楓宸, 豈知民物多艱辛]고도 말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모두 민의 질고에 대한 사실적 시화의 차원에서 뛰어난 성과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시인이 그들의 삶에 한층 깊이 있게 몰입하여 감정적 거리를 좁힌다거나 질고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 문제의식을 떠올리는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못하다는 점에서 즉자적 애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성현은 명백히 관찰사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까지 하다.

김종직의 애민의식에 대해서도 가뭄·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서 기인한 민의 질고에 대한 위로와 사실적 고발,⁸⁾ 민을 제대로 돕지 못하는 처지에 대한 자괴감,⁹⁾ 민의 궁핍을 도외시한 채 가렴주구와 호화로운 생활을 일삼는 관인들의 애민의식 결여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주요한 특징으로 논구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의식이 훗날 지식인의 책무에 대한 각성 촉구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¹⁰⁾ 그렇다면, 이와 같은 김종직의 애민의식은 선행하는 애민시의 내적 전통으로부터 얼마나 더 나아갔는가?¹¹⁾ 민생을 안정시켜 그들의 삶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서 나아가 그들이 서로 화합하며 정신적으로도 윤택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했던 정치의식¹²⁾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7) 서거정, 『사가시집』 권8, <積雨連旬, 爲患甚大, 昨稍開霽, 入夜復作, 勢甚劇, 不能不有感于懷, 曉起愴然有作>, “天工天工豈無情”; “蟻蝨小臣稱學文, 直擬草疏叫天闕.”

8) 김영봉, 『金宗直 詩文學 研究』, 이회, 2000, 188~189면; 이원걸, 앞의 책; 정경주, 앞의 논문.

9) 김성규, 앞의 논문, 73~75면; 김영봉, 위의 책, 190~191면; 이원걸, 위의 책, 132면. 김성규는 이 자괴감을 ‘지방 출신의 힘없는 신진관인으로서 느끼는 안타까움과 울분’으로, 김영봉은 ‘나이가 어리고 아직 벼슬을 하지 않는 처지로서 느끼는 아쉬움과 소박한 소망’으로 구체화한 바 있다.

10) 김성규, 위의 논문, 78~82면; 정경주, 앞의 논문, 77~79면.

11) 김영봉은 김종직이 수학기에 지은 애민시에 대해 절실하고도 사실적인 시화라는 점에서는 특징적이지만, 유가의 전형적 민본사상과 ‘보편적 연민’을 시화하였다는 점에서는 다른 애민시와의 공통점이 더 크다고 보았다. 김영봉, 앞의 책, 188~195면.

12) 홍귀달, 『佔畢齋集』 附錄, <神道碑銘并序>, “出守咸陽郡, 其治以興學育才, 安民和衆爲務, 政成爲第一.”

본고는 김종직이 다른 문인들과 달리 10대의 거자 시절부터 민생의 현장에 스며들어 그들의 삶을 편견 없이 관찰하고 직접 대화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다른 문인들과는 차별화된 애민적식의 진실성과 구체성이 배태되었다고 보고, 그 실상을 섬세하게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그것이 민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문제적 현실에 대한 고발을 넘어, 사로서의 자각과 연결되는 지점을 조감할 것이다. 이를 위해 『회당고』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창작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점필재집』 시집 초반부에 수록된 작품들을 방증 자료로 삼았다.

II. 민-사의 심리적 밀착과 실천 강령의 제시

출사 전 김종직은 영남 지역을 유람하는 가운데 민생의 터전이 겪는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그 실상을 시로 기록하는 데 열중했다. 그 가운데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민생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자주 포착되고는 한다. 15세기에는 『농사직설』 편찬(1429년, 세종3) 등 국가의 주도로 새로운 벼 재배법이 보급되고, 지력 개선 및 수리관개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한 농업기술의 진전이 이루어지면서 농업 생산량 역시 대폭 증가하였다.¹³⁾ 그러나 그것이 농민 생업의 안정과 직결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에 자연재해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기에 그때마다 민은 초근목피나 환곡에 의지하여 근근이 위기를 버텨냈을 것이다. 문제는 아전[吏]-지방관-관찰사 및 중앙 조정의 관료 간 유연하지 못한 일처리로 인해 제대로 된 구휼과 사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에게 가장 밀착해 있는 ‘사’로서 지방관은 문제적 상황에서 각 지역의 특성이나 현황에 맞게 민의 절고를 해결해야 하지만, 민과 지방관 사이에 있는 ‘리’를 포함한 다른 존재들로 인해 이목이 가려지는 일이 허다했다. 앞서 살펴본

13) 농법의 보급과 생산력 진전에 대한 사학계의 연구성과 및 구체적 발전량에 대해서는 이상민, 『여말선초 덕형 절충과 유교 이념의 제도화 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23, 9~10면, 101~103면 등에 상세하다. 여기에는 생산력의 증대에 따른 조세의 변화, 민에 대한 구휼책 등이 정리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성현의 시에서도 언급되었듯, 중앙 정부에서 민생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한 것이었다.

<밀양 등지에 수재가 심하다는 소식을 듣고[聞密陽等處水災]>¹⁴⁾라는 시는 '무진년(戊辰年, 1448년)'이라는 간기를 통해 그가 18세에 지은 작품임을 알 수 있어 연구자들에게 일찍이 주목받았다. 당시 김종직은 성균관에서 수학하던 거자 신분이었는데, 밀양에서 온 어떤 사람에게 고향에 일어난 수재 소식을 듣게 되었다. 김종직은 그 사람의 목소리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태풍을 겪은 민의 고통과 피해 복구에의 눈물겨운 노력을 묘사하는 한편, 이와 같은 실정을 시로나마 임금께 전달하고자 한다는 소박한 소망과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¹⁵⁾ 그런데 작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초도화된 고향의 모습과 민의 질고에 대한 묘사 자체보다도 그들이 겪는 고통을 매우 심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礮礮塚峯崩	우르릉 독 무너지고
洶湧百川溢	하천은 용솟음쳐 넘치니
沿岸幾百里	강이 몇백 리 되었던가
老弱爲魚鼈	노약자들은 죄다 물고기 밥 되었다오
彌望盡沙石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토사요
列郡田野闕	고을마다 논밭이 황량해졌는데도
寬大未可見	관대한 구휼은커녕
誅求時恐失	때 농칠세라 가혹하게도 세금 거둬 가네
正直當不虧	그 누가 원결처럼
何人作元結	정직함을 잃지 않을 수 있겠는가?
郵吏遞急符	역리는 급한 부첩 전달하여
丁中並調闕	정남, 중남 모두 징발해 내네
驅之築邊堡	그들을 몰아다 무너진 둑을 쌓게 하니
奚暇拾茅栗	어느 거름에 도톨밤이라도 주우랴?
道路咸指天	모두 길에 서서 하늘을 탓할 뿐
怨傷誰復決	이 원통함을 그 누가 해결해 주리요?

14) 김종직, 『梅堂稿』(『佔畢齋先生全書』 4), 학민문화사, 1996, 750면.(이하 서명과 수록면수만 제시)

15) 김영봉, 앞의 책, 190~191면.

而我聞此言	내 이 말을 듣고는
伍首心欲裂	마음이 찢어질 듯하여 고개를 떨구었네
俯仰小窓間	창가에서 탄식하며
撫躬傷薄劣	못난 내 처지를 돌아보네
記彼哀苦言	저 슬픔에 찬 고통의 말을 기록하여
裁詩偏激烈	시를 지으니 유난히도 격렬하다
誰能採此詞	누가 이 시를 뽑아다
敷奏九重關	구중궁궐에 아뢰거나?

1448년(세종30) 음력 8월, 경상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벌어진 산사태와 홍수, 곡물 손상과 인명피해는 실록에 기록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¹⁶⁾ 김종직은 미처 대피하지 못한 노약자들이 대거 익사한 비극[老弱爲魚鼈], 홍수에 쓸려가 경계를 알 수 없어진 논밭의 황량함[列郡田野闕]에 대한 묘사를 필두로, 세금 납부 기한을 속절없이 마주한 수재민의 이중고를 날날이 형상화하였다. 시적 화자는 그나마 피신해 살아남은 장정들조차 무너진 강둑을 보충하는 일에 동원되느라 식구들을 먹여 살릴 먹거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등, 굶주림에 시달리는 수재민에 대한 진휼책이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적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기실, 이 시의 사상 전개는 당나라 시인 원결(元結)의 <용릉행(春陵行)>에서 차용한 것이다. <용릉행>은 원결이 도주자사(道州刺史)로 부임한 뒤에 지은 시로, 도적과 가림주구로 인해 민이 유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가 이러한 상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채 세금을 독촉하는 것에 대해 지방관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백성을 제대로 보호하는 길인지 고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편을 임금께 진상하여 참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의지 역시 <용릉행>에 출전을 두고 있다.¹⁷⁾ 이와 같은 원결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창작한 김종직의 시에서 가

16) 『세종실록』 권121, 1448년(세종 30) 8월 19일, “慶尙道 淸道、密陽、靈山、永川、仁同、慶山、晉州、盈德、奉化、玄風、高靈、咸安、大丘、河東等郡縣, 疾風急雨, 損禾稼; 山崩水溢, 人多死者.”

17) 원결, 『次山集』 권4, <春陵行>, “郵亭傳急符, 來往跡相追. 更無寬大恩, 但有迫促期. (….) 悉使索其家, 而又無生資. 聽彼道路言, 怨傷誰復知?”, “顧惟孱弱者, 正直當不虧. 何人采國風? 吾欲獻此辭.” 밑줄 강조된 대목은 김종직의 시에 직접적으로 인용된 부분이다.

장 심각한 구절은 전달자의 마지막 말에 담겨 있다. 민은 달리 하소연할 데 없이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분노를 삭이다 하릴없이 피해 복구 현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홍수 자체보다도 그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느낀 민의 고립감과 막막함, 절망감이 이 마지막 구절에 절절히 형상화되어 있다. 10대 특유의 비분강개함과 함께 이규보의 애민시에 보이던 직설적이고 신랄한 어조가 이면에 배어 있는 듯하다.

김종직은 제3자의 입을 통해 이처럼 울분에 찬 민의 목소리를 전하여 듣고,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민의 답답한 처지에 매우 세심히 공감하고 있다. ‘而我聞此言’과 같은 시구는 앞서 인용한 서거정의 시에서도 보이는 표현이지만, 공감의 깊이를 비교해 보자면 훨씬 더 심중한 것으로 보인다. 고향에 남아 있었다면 자신도 겪었을지 모를 민의 고통을 온통 자신의 것인 양 몰입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재의 처지에 무력감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찢어질 듯한 마음[心欲裂]’, ‘못난 자신[傷薄劣]’의 처지에 대한 자각 등은 관습적이고도 심상한 표현이지만, 모두 심리적 ‘고통’을 진정성 있게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俯仰’, ‘撫躬’ 등의 시어 역시 그들의 고통을 해소해 줄 방법이 없기에 발을 구르며 주변을 배회하고 시선 둘 곳을 찾지 못하는 김종직의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행동으로 표상된 것이다. 10대 시절부터 현실의 민과 거자 김종직의 심리적 거리는 이토록 밀착되어 있었다. 민의 처지에 대한 이와 같은 귀기울임은 다른 시에서도 수차례 반복된다.

자연재해가 민의 삶에 미친 영향은 1456년 음력 8월 밀양에 다시 한 번 홍수가 난 뒤에 지은 <환곡 상환을 독촉하는 아전[催糶吏]>이라는 시에도 잘 드러나 있다.¹⁸⁾ 김종직은 이해 3월 부친상을 당하였지만 거듭된 흉년으로 인해 삼월지제(三月之制)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민가로 내려오게 되었다.¹⁹⁾ 이 시에서 김종직은 추석의 수확을 앞두고 있던 작물이 홍수에

18) 『회당고』, 776면. 김영봉은 이 시가 농민들을 불행하게 만든 아전층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들 중간계층의 착취와 자연조건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에 대한 보편적 연민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영봉, 앞의 책, 195면.

19) 제하주: 丙子(1456)八月大水後, 道宿加利縣野人家作; 김종직, 『이준록』 상, <先公紀年 第二>, “景泰七年丙子(…)三月初二日, 卒於大洞里第正寢. 孤子等以年荒家貧, 不能從三月之制, 十二月庚申, 葬于粉底谷我外祖妣閔夫人塋西.”

쓸러 내려가 제대로 된 이삭조차 남아 있지 않은 모습, 물에 잠긴 곡식과 떠내려온 각종 부유물·오물 등이 뒤섞여 바람결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고향의 현실[茂溪兩岸禾黍村, 一苗半穗無復存. 行人馬上袖鼻過, 風動爛臭盈平原.] 등 자신이 목도한 참상을 시각적·후각적 심상을 동원하여 생생히 묘출해내고 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민가에 묵으며 김종직은 주인으로부터 민을 구제할 목적으로 만든 환곡제도가 연이은 자연재해 앞에서 도리어 민의 삶을 옥죄어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老翁携婦帶筐筥
 擺泥拾穗相追奔
 終日所得能幾何
 歸家趁却棲鴉昏
 催糶縣吏怒目張
 操鞭唐突夜到門
 應答稍遲吏愈罵
 翁婦匍匐前致言
 去春阻飢走大倉
 血肉孰非官家恩
 今年償之春復糶
 較來盡是吾糶痕
 苟有所穫胡忍斬
 忍令虫蛆生背臂
 天亦兩眼尚可眡
 豈有糠粃充盎盆
 今年蕩柝家家同
 老身自售誰擬論
 仰指月星空雪泣
 九重安得聞此冤

노옹이 아내 데리고 광주리를 들고 와서는
 진흙 파헤치며 분주히 이삭을 줍네.
 종일 몇 알이나 얻었으려나
 집에 돌아오니 갈가마귀도 잠든 저녁.
 헌데 세금 독촉하는 아전이 눈을 부라리며
 한밤중에 채찍을 들고 당당하게 문으로 들이닥치네
 대답이 조금 늦자 아전이 더욱 욱하니
 노인 내외 그 앞으로 기어가서 말하길
 “지난봄, 굶주림에 시달리다 관창(官倉)으로 달려간 덕에
 목숨 부지하였으니 모두 관가의 은혜입니다
 올가을에 환곡 갚아도 봄에 다시 꾸게 되리니
 따져보면 환곡으로만 먹고 살았습니다
 수확한 것이 있다면 어찌 차마 아끼면서
 등과 팔에 구더기가 슬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늘도 두 눈이 있어 보시겠지요
 겨와 쪽정이로 어찌 동이를 채우겠습니까?”
 올해는 집집마다 먹을 것이 동났으니
 늙은 몸 판다한 들, 그 누가 사가리요?
 고개 들어 달만 보며 하릴없이 눈물만 닦으니
 어찌하면 구중궁궐에서 이 원통함 들으실까

남아난 곡식이 없을 정도로 일대를 초토화시킨 재해 앞에서도 아전은 도리어 왈패처럼 행패를 부리며 늦은 밤중에 백성들을 찾아가 환곡 이자를 갚으라고 욱박지른다. 두려운 마음에 인기척조차 제때 낼 수 없었던 노부부

는²⁰⁾ 종일 흙을 파헤쳐 나라를 모으고 있어 이자를 낼 상황이 아니며,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忍令虫蛆生背臂]에 걸릴 지경임을 호소한다. 먹을 것이 없으니 날품이라도 팔아[老身自售] 연명해야 하겠지만 모두가 같은 처지이니 그런 임시방편마저 수월치 않다.

관찰자 김종직의 시선 속에, 국가는 자연재해로부터 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九重安得聞此冤] 있다. 노부부의 집에 머물며 이러한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노라니 눈물이 절로 흐른다. 임금의 대리인인 지방관, 지방관을 보좌하는 아전은 모두 민의 실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존재이면서도 오히려 더욱 폭력적으로 굴며 민이 고향에 정주하지 못하고 유랑하게 만들거나[今年蕩柝家家同],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는 등 무심하고도 잔인한 면모를 보인다. 1458년에 지은 또 다른 시에서는 가뭄으로 곡식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한 민의 처지를 ‘마른 도랑에서 겨우 목숨만 붙은 채 혈떡이는 물고기[性命雖苟存, 猶魚躍枯瀆]’에 비유하기도 하였다.²¹⁾ <봄가뭄[春旱]>이라는 시에서는 비가 제때 내리지 않아 흙먼지가 날리는 망종(芒種)에 권농사가 농사의 현장에 찾아와 벼모를 심을 것을 형식적으로 권유할 뿐 관개시설을 보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정황을 고발하기도 했다.²²⁾ 이러한 문제제기는 모두 남달리 민생의 현장에 밀착하여 그들의 절고를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특히 그것이 사실적·비판적 시화를 넘어, 이면에 가려진 구조적 문제와 사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까지 사유를 확장해 나가는 단초를 포함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我時不能寐	산불 목격하고 잠이 오질 않으니
怪之志莫舒	괴이하여 마음 편치 않네
山僧解我言	산승이 그 마음 풀어주려 말하기를

20) <갑을령 아래 인가에서[甲乙嶺下人家]>([『회당고』, 839면)에서는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지려 찾아간 인가에서 개가 인기척에 짚자 주인이 세금을 독촉하러 온 관리인가 의심하였다[犬吠主人疑稅吏]고 표현하였다.

21) 『회당고』, <중추에[中秋]>, 765~766면, “今歲愈荒旱, 將乏登場穀. 性命雖苟存, 猶魚躍枯瀆. 非無避地計, 安得建德國? 且盡今夕歡, 明日非所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불편한 현실은 밀줄 그은 결구에서처럼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음’이라는 포기과 절망감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22) 『회당고』, 788면, “南人未曾作桔槔, 垂絙引槽水不屬. 用力雖多得效少, 終日纔看數畝沃. 勸農使者來循衆, 水國芒種期迫促. 我有沙磧二頃田, 木槌擊塊煩奴僕.”

萬物生意微
野人先焚之
爲此薇蕨肥
春雨一來洗
萌芽皆葳蕤
苞生大侷指
櫛櫛成蓊奮
新穀尙未升
舊穀已無儲
相携採此物
可以充其饑
而我聞此言
支頤重歎歔
誰能勤變理
風雨調無違
俾民三年耕
必得一歲餘
免此焚山酷
家家有儲胥

“만물에 생기가 미미할 때
화전민들이 먼저 불을 지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고사리가 살이 찌고
봄비가 한번 씻어내리면
그 싹이 점점 불어납니다
떡잎이 손가락만큼 나오다가 이내
뻑뻑하게 밭을 이루지요
햇곡은 아직 영글지 않고
구곡은 벌써 다 떨어졌을 때
모두 와서 이걸 캐다가
굶주림을 채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는
턱을 괴고 거듭 한숨지었네
그 누가 자연의 섭리에 부지런하여
풍우가 어그리짐 없이 조화를 이루게 하고
백성들이 3년 경작하면
반드시 1년의 여유가 있게 하여
이렇게 산을 태우지 않아도
집집마다 쌓은 곡식 있게 할 수 있으랴?

인용한 시는 김중직이 선산이나 고령 근처의 산사에서 학업을 하면서 지은 것으로 보이는 <산불[山火]>²³⁾이다. 공부하던 도중 산불이 난 것을 보고 놀랐는데,²⁴⁾ 승려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하며 안심시킨다. 화전민들이 춘궁기에 대비하여 산불을 놓은 것인데 그렇게 하면 고사리와 나물이 더 잘 자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김중직에게 더욱 진지한 의문이 떠오른다. 민의 삶은 언제나, 여전히 녹록지 않다. 애당초 민이 봄마다 산에 불을 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궁핍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23) 『회당고』, 758~759면.

24) 위의 글, “讀書寓爾若, 黃昏關窓扉. 遙見束縵人, 經略荒榛歸. 須臾黑煙起, 遠山布紅輝. 風回草木動, 烈焰衝天飛. 初如漢軍士, 入趙赤幟揮. 復似明堂會, 萬燎耀天旂. 連袤二三嶺, 衆壑陰雲晞. 罔兩泣幽嶽, 虎豹失其依.”

가뭄이나 홍수의 탓이기도 하고[風雨調無違] 당시의 부족한 농업생산기술 때문일 수도 있다. 아울러 이처럼 농업 현황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재해를 겪는 민의 현실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지방관과 아전 등의 문제이기도 하다. 민은 소출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식량을 제대로 저장할 여력도 없어, 5~6월이 되면 이미 식량이 떨어진다. 보릿고개는 20세기에 들어서도 지속되었던 문제이므로 15세기 조선의 현실에서는 그것을 타개할 대책이 있었을 리 만무하다. 앞선 시에서도 살펴보았듯, 이럴 때 민은 의창(義倉)의 환곡을 이용해 봄을 나고 가을에 수확하면 낫 곡식을 상환하지만, 가뭄이 거듭되어 환곡 외에 납부해야 할 세금마저 바치고 나면 다시 먹을 것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1년의 비축분이 있게 하는 삶은 왜 불가능한가. 그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인가. 3년을 경작하면 1년의 여유분이 있고, 9년을 경작하면 3년의 비축분이 있어 민이 삶을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설정은 『예기』에서 비롯된 것이다.²⁵⁾ 거자 김종직은 농업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지만, 정부에서 환곡과 수취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만 민의 삶이 제대로 영위될 수 있다는 것만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비슷한 소재에 대한 서거정의 심리적 반응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가 더욱 명확해진다.

春山燒後長新芽	봄산을 태운 뒤 새싹이 자라나니
處處傾筐採採歌	곳곳에서 광주리 기울여 나물 캐는 노래 부르네.
出糶歸來供午飯	쌀 팔아 와서 점심을 차려내니
可憐生理仰官家	관가에 의탁하는 생활이 가련하구나.

-<봄에 춘가에서 본 일을 기록하다(春日, 村家書事)>(『사가시집』권3)

이 시에서 서거정은 산을 태워 나물을 자라게 하고 춘궁기가 되면 그것을 캐다 먹거나 환곡을 꾸어 춘궁기를 넘기는 민의 삶에 대한 연민을 표하였지만, 여기에는 궁핍의 악순환에 대한 심각성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반

25) 『예기』, <王制>, “三年耕, 必有一年之食. 九年耕, 必有三年之食. 以三十年之通, 雖有凶旱水溢, 民無菜色, 然後天子食, 日舉以樂.”

면, 김종직은 그것이 악순환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김종직의 애민의식은 이처럼 민생에 대한 비판적 관찰과 진정성 있는 공감은 물론, 사회적·제도적 구조의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초기시에서부터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여말선초 여타 문인들의 애민의식으로부터 진일보하고 있다. 특히 민생 해결의 과제를 예비 관료이자 ‘사’인 자신이 당면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구체적 실천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자연의 섭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부지런히 일해야 할 존재[誰能勤變理]는 다름 아닌, ‘사’이다. 이 시에서 김종직은 ‘사’의 역할과 그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에 대해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민생의 궁핍과 관련한 악순환의 고리를 제도적으로 끊어낸 사례를 아버지 김숙자의 임지를 배행하는 과정에서 체득할 수 있었다. 김숙자는 일찍부터 현행 공법(貢法)의 문제점, 답험(踏驗)제도의 폐단 및 개선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는데, 지방관이 된 뒤 그것을 실제로 시험해 본 바 있다.²⁶⁾

아버지께서는 두 차례 현감을 역임하시면서 “토지가 있고 인민이 있으니, 여기에서도 나의 학문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중략) 백성들에게 권농할 때에는 봄여름마다 수행원도 없이 몸소 밭도랑 사이를 오가거나 방죽을 순시하면서 종자가 없는 백성에게는 종자를 빌려주고, 먹을 것이 없는 백성에게는 식량을 대주었다. 부지런한 백성은 위무해주고 게으른 백성은 징계하였다. (중략) 개령현감이셨을 때에는, 탄동 등지에 방죽을 쌓아 농토에 물을 대 주니 백성들이 그 혜택을 많이 입었다. 구황할 때에는 반드시 바람보다도 빠르게 대처하였다. 당시의 수령들은 모두 나이(挪移·곡식의 임시용동)를 두려워하여 의창의 곡식이 떨어져도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은 송장을 보기만 할 뿐 구제할 줄을 몰랐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옛날에 한소(韓韶)는 골짜기에 뒹구는 백성들을 살린 뒤 웃음을 머금고 땅속에 들어가고자 하였고, 급암(汲黯)은 왕명을 청탁하여 관창을 열어 백성을 구제하고 처벌을 사양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백성을 살리는 데에 마음을 둔다면 왜 법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하시며 군수미를 몽땅 풀어 백성들을 진휼하였다.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가을에 수확기가 되자 억지

26) 김종직, 『이준록』하, <先公事業>, “戊辰年, 世宗欲改定八道田品, 差大臣爲巡察使, 敬差官凡七十餘員, 先試全羅道, 先公以校書校理, 亦與焉. (….) 世宗下教問中外官吏以貢法踏驗便否, 先公在高靈, 卽上書.”

로 재촉하지 않아도 환곡을 다 갚았다. (중략) 그 덕분에 1445~1446년과 같은 흉년에도 경내의 백성들은 온전하게 살아남고 황폐해진 토지도 없었다.²⁷⁾

인용한 글은 『이준록』 <선공사업>의 한 대목이다. 김종직은 여기에서 지방관이 권농의 일환으로 직접 고을을 순시하며 토지의 상황과 작황을 파악하고, 종자를 배포하거나 관개시설을 수리하는 등 제도적 조치로써 농업 생산량을 늘린 사례를 상세히 서술하였다. 아울러 환곡 운용과 관련하여 재해의 심각성에 상관없이 고식적 태도만을 고수하며 민을 제대로 진휼하지 못하는 지방관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김숙자가 유연하게 대처하여 구황에 성공한 사례를 특기하였다.

아마도 김숙자는 흉년이 들면 민이 의창에 상환해야 할 곡식이나 이자를 대폭 탕감해 주었던 듯하다. 상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끝내 의창에 곡식이 비게 되면 군량미를 대신 나누어 주어, 민이 토호들에게 고리(高利)로 식량을 꾸어 먹다가 끝내 파산하거나 유랑하게 됨을 막았다. 창고에 쌓인 미곡이 관리 부주의로 빗물이 새어 썩어 버리는 경우가 조선전기에 종종 발생했거니와,²⁸⁾ 김숙자는 오래도록 쌓여 있는 군량미가 부패하여 버리느니 차라리 민에게 유통하여 진휼의 임무를 완수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다시 농사를 지어 추후 새 곡식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春務一何急	봄 농사 얼마나 바쁜지
田父爭叱犢	농부들은 다투어 소를 몰며
短褐並耦耕	잠방이 입고 나란히 밭을 가니
堤水幽幽綠	논둑의 물은 깊고 푸르구나

27) 김종직, 앞의 책, “先公兩爲縣監, 必嘆曰: “有土地有人民, 是亦可以行吾學也.” (….) 其勸農桑也, 則每春夏, 寡驍從, 躬出入阡陌, 巡視堤堰, 民乏種者貸之, 乏食者賑之, 勤者慰而惰者懲. (….) 在開寧, 築炭洞谷松松林三陂, 溉田幾七八百頃, 民多賴其利. 其救荒也, 必急於風火. 時守令等怕於挪移之律, 義倉告罄, 則坐視餓殍而不知救. 先公曰: “昔韓韶活溝壑之民, 欲含笑入地; 汲黯鑄制發倉, 而無辭於罪. 苟存心於民, 何懼於法?” 盡發軍須, 以賑給之. 民感其惠, 秋熟, 不煩鞭朴悉償之. (….) 以故如乙丑丙寅之歉, 闔境全活, 民無捐瘠, 亦無荒田矣.”

28) 『세종실록』 권87, 1439년(세종 21) 11월 6일, “請令諸戶百姓及軍人勸課當社, 共立義倉, 收穫之日, 隨其所得, 勸課出粟穀麥於當社, 造倉窖貯之. 卽委社司, 執帳檢校, 每年收穫, 勿使損敗. 若時或不熟, 當社有飢饉者, 卽以此穀賑給.”; 『문종실록』 권9, 1451년(문종 1) 8월 4일, “議政府據戶曹呈啓: ‘廣興倉米穀, 官吏因頻數遞代, 不用心看守, 以致朽損, 實爲未便.’”

共言官長峻	모두 말하기를 “사또께서 엄하시어
桑野屢擊木	땡발에 나와 자주 목탁을 치십니다
勸懲隨勤惰	부지런한가 게으른가에 따라 상도 주시며
拊循良委曲	자상하게 두루 어루만져주시지요
況吾生所依	하물며 내가 의탁하여 사는 곳
何待官迫促	어찌 관의 독촉을 기다리겠습니까?”
筋力不容惜	힘을 아끼지 않고
勞勤逸乃續	부지런히 힘쓰면 편안함이 이어지리니
倦遊者何人	그 누가 게을리 놀겠는가?
急去違我目	말을 마치고는 급히 내 눈에서 멀어지네

인용한 작품은 <망정에서부터 소령을 넘어 부곡촌에 도착하다[自忘情, 踰小嶺, 抵釜谷村]>²⁹⁾ 라는 시이다. 막 부곡촌에 도착하여 숨을 돌리며 바라본 봄 풍경은 참으로 건강하고 역동적이다. 눈에는 물이 가득하고, 배잡방이를 입은 백성들이 바삐 움직이며 농무에 힘쓴다. 그 원동력은 작황의 현실을 극진하게 파악하고 있는 지방관의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농상독려를 통해, 민이 몸을 열심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다[筋力不容惜, 勞勤逸乃續]고 확신하는 데서 오는 자발성에 있다. 민생 안정과 관련하여 아버지로부터 배운바, ‘사’ 계층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강령과 그 파급효과가 이 시에서 재확인되고 있다. 김종직은 <모내기[移秧]>³⁰⁾이라는 작품에서도 독에 도랑을 내고 잡초를 뽑으며 모내기를 하는 시기에 어진 관리가 순시하며 이를 관리 감독하는 장면을 긍정적으로 시화하는 등, 애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서 ‘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은 김종직의 시심을 촉발한 직접적 원천은 국가에서 제대로 된 재난 대응 정책을 펼치지 못하여 고향의 민이 고통 받는 것에 대한 분노와 공감에 기반한 애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일회적·일시적 방문이 아닌, 민생의 현장에 밀착하여 그들의 삶을 누구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추적해

29) 『회당고』, 746면.

30) 『회당고』, 798면, “運得陂塘水, 渾渾未拍堤. 溝穿新壟草, 秧洗本窠泥. 細葉風教舞, 深畦鶯欲棲. 行看良牧過, 舉鋤雨淒淒.”

은 노력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남다른 진정성을 담보한다.³¹⁾

그러나 그의 애민의식은 즉자적 공감의 차원이나 사로서 민의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만은 없다는 추상적 책임감과 같은 감정적 차원을 넘어, 구체적이고도 유연한 대안 제시 및 실천 강령의 적극적 모색으로 확장되고 있다. <용릉행>에서 원결은 조세 납부의 기한을 어겨 국가에 대한 죄를 면할 수 없을지언정,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방관의 급선무[靜以安人, 待罪而已]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민생 안정은 사의 예민한 현실감각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성찰을 거치며 김종직은 15세기초에 지속된 민생 위기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사로서 민이 직면한 문제적 상황을 구조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국가제도의 맹점을 능동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함을 깨닫는 경지로 나아갈 수 있었다.

III. 민생 안정의 주체로서 사의 존재의의

앞서 살펴보았듯, 민과 사 혹은 관(官: 지방관) 사이에는 아전을 비롯한 여러 중간적 존재들이 있다. 특히 조세 수취 과정에서 '리'의 횡포와 개입은 민생을 가장 피폐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수탁기에 목도한 그들의 횡포는 김종직이 출사한 이후 병마평사 및 영남을 순행하는 과정에서 그려낸 <가홍참>, <낙동요> 등에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嵯峨鷄立嶺	우뚝 솟은 계림령은
終古限北南	예로부터 남북을 갈라놓았지
北人鬪豪華	북쪽 사람은 다투어 호화를 누리며
南人脂血甘	남쪽 사람의 고혈을 빨아먹었네
牛車歷鳥道	우마와 수레로 험준한 길 지나느라
農野無丁男	들판에는 장정이 없고
江干夜枕簾	밤이 되면 강가에서 뒤엉켜 자니

31) 민에 대한 그의 공감이 거짓이 아닌 진심임은 대부분의 작품에서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수반한 것으로 형상화되는 점, 그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청취하고 숙고하는 과정[而我聞~ 言의 반복]을 거친 결과라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吏胥何婪婪
(…)

民苦剜心肉
吏恣喧醉談
斗斛又討贏
漕司宜發慚
官賦什之一
胡令輸二三

아전들은 어찌 그리도 탐욕스러운가?
(중략)

백성들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 괴로운데
아전들은 방자히 취해 떠들고
남은 곡식도 죄다 추렴해가니
조사(漕司)는 부끄러워해야 하리라
관에서 부과한 세금은 십 분의 일세인데
어찌 십 분의 이, 삼을 거두어 가나?

-<가홍참>(『점필재집』 시집 권4)

樓下網船千萬緡
南民何以堪誅求
餅甕已罄橡栗空
江干歌吹椎肥牛
皇華使者如流星
道傍騶轔誰問名

관수루 아래 줄 이은 관선에 천만 꿩미 돈이어
남쪽 백성들이 그 가렴주구를 어떻게 견디리오?
쌀독은 텅 빈 지 오래, 도토리도 떨어졌는데
강가에선 풍악 울리며 살진 소를 잡네
진홀사는 유성처럼 바빠 오가지만
길가의 해골들을 누가 이름이나 물어볼까?

-<낙동요>(『점필재집』 시집 권5)

이 두 작품은 김종직의 애민의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을 뿐 아니라, 풍요로운 북인[훈신, 중앙정치세력, 그들과 결탁한 아전]과 굶주리는 남인[영남의 백성]을 대비하여 지배계층의 수탈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³²⁾ 그런데 이 두 작품이 지어진 시기는 조선이 개국 이후부터 법적으로 금지해 오던 공물대납제(貢物代納制)를 전면허용하던 때와 맞물려 있음이 새롭게 주목된다.³³⁾

조선은 중앙에 필요한 물자를 각 지방으로부터 직접 현물로 징수하는 방식의 수취제를 운용하였다. 이를 위해 세종대에 각 지방 관아에 현물 공물을 배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그 고을에서 생산되지 않는 이른바 불산공물(不産貢物)이 배정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승려나 아전 등의 전문대납인이 각 지방관의 의뢰를 받고 해당 고을에 배정된 물건을 구매하

32) 김성규, 앞의 논문, 71~73면; 이원걸, 앞의 책, 135면; 이원주, 앞의 논문, 12~15면; 정경주, 앞의 논문, 79~82면.

33) <가홍참>은 1468년(세조14) 4월, <낙동요>는 1469년(예종1) 정월 즈음에 지은 것이다.

여 중앙 관청에 대리 납부한 뒤, 납부 확인 문서를 가지고 다시 현지에 찾아가 대납가와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이 바로 공물대납제다. 공물대납은 불산공물의 해소를 위해 묵인되었지만 법적으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는데, 1459년(세조5)을 전후로 약 10여 년간 국가의 재정적 필요에 따라 법적으로 전면 허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납인이 농간을 부리거나 세가와 결탁하여 본래 징수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착취하는 폐단이 생겼다.³⁴⁾

각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대전(大典)』에 (중략) 억지로 대납하게 하거나 대납금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자는 임금의 명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는 ‘제서유위(制書有違)’로 논죄하고, 대납인이 수령에게 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민간에서 직접 공물을 거두는 자도 ‘제서유위’로 논죄하며 그 거둔 물건은 관가로 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수령들이 모두 이와 같지 않아 대납 여부에 대해 백성들의 사정은 들어주지 않거나, 대납인이 대납가를 징수하려 찾아가면(수령이 직접 대납가를 지불하지 않고) 민가로 찾아가 그 값을 과도하게 요구하도록 만든다고 한다. 특히 전세공물(田稅貢物)의 값에 대해서는 빚을 진 자에게 직접 포구까지 운반하게 하는데도 관가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모른다고 한다.”³⁵⁾

인용한 글은 1462년 세조실록에 기록된 대납제의 폐단이다. 기사에도 드러나듯, 본래 조선은 조세 징수자와 납세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게 하고, 지방관·아전이 답험 → 과세액 고지 → 세금 수취 및 운반의 과정 일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관의 주체적 역할을 확보하게 하였다. 그러나 공물대납제가 허용된 뒤 대납인이 현지를 찾아와 대납금액을 받아 가는 과정에서, 지방관이 대납가를 직접 지불하는 대신 이들이 민가로 찾아가 징수해 가게 한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이에 전문대납인들은 민간에 머물며 민에게 실제보다 더 높은 이자수수료를 붙여 과도한 대납가

34) 강제훈, 『朝鮮 世祖代의 貢物代納政策』, 『조선시대사학보』 36, 조선시대사학회, 2006, 111~112면; 소순규, 『조선 세조대 공물 대납 公認의 정책적 맥락』, 『역사학연구』 72, 호남사학회, 2018, 52~53면. 세조대부터 예종대까지 공물대납제의 폐단에 대해서는 『예종실록』 권3, 1469년(예종 1) 1월 27일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35) 『세조실록』 권29, 1462년(세조 8) 8월 10일, “諭諸道觀察使曰: 《大典》(…)若勒令代納及過數收價者, 以制書有違律論, 其代納之人不告官, 擅收民間者, 亦以制書有違律論, 價物沒官. 今聞守令等皆不如是, 民雖欲之而不從, 不欲而強之, 皆不聽民之情願. 及其收價, 亦令代納人出入民間, 厚索其價. 至於田稅貢物之價, 使作者直輸浦所, 官不知之. (…)”

를 거둬가는 한편, 배가 출발할 포구까지 민에게 그것을 직접 운반하게 하는 불법적인 요구를 버젓이 자행하였다.³⁶⁾ 이 기사는 <가홍참>과 <낙동요>에 비판적으로 묘사된 장면과 정확하게 대응된다.

김종직은 들에서 한창 농업에 전념해야 할 장정들이 우마와 수레에 직접 세금을 싣고 포구로 운반하는 데 동원되었음을 ‘農野無丁男, 江干夜枕籜’라는 표현으로 시화하였다. 세조의 위와 같은 엄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물 대납인 및 그들과 결탁한 아전이 민에게서 본래 정해진 공물 납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불법적으로 편취해 가는 상황, 지방관 및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은 이러한 상황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방관하는 상황[道傍髑髏誰問名]을 포착하고 비판하고 있다. 중앙에서 파견된 조세 관리인이나 지방관이 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민에게 전가될 뿐이다.

蜜蜂採百花
辛勤將禦冬
爾若得其窠
殺奪肆威兇

(…)

邀其未及飛
拉之疾若風
兩翼盡摧碎
落地聲訕訕
急就斬其尾
而又洞其胸
蚊蚋爭來嘬
螻蟻穿腹中

꿀벌은 온갖 꽃에서 꿀을 따
고생하며 부지런히 겨울에 대비하는데
너희들은 꿀벌 집에 쳐들어가
흉포하게도 죽이고 빼앗는다.

(중략)

날아가기 전에
질풍처럼 (막대기로) 치니
두 날개가 모두 부러져
땅에 떨어져 웅웅 거리네
급히 꼬리의 침을 자르고
가슴도 도려내니
파리가 다투어 날아와 빨아먹고
개미가 뱃속을 파고들겠지

인용한 작품은 <말벌을 처죽이다[拉蜂]>라는 제목의 시이다. 1454년(단종2) 음력 3월에 지은 것으로, 김종직이 소나무 그늘에서 독서를 하는 사이,

36) 강계훈, 앞의 논문, 128~130면; 소순규, 앞의 논문, 33~36면. 『세조실록』 권28, 1462년(세조 8) 5월 8일, “上曰: ‘(…) 今代納人等侵索於民, 倍蓰收價, 貢物則累年不納, 以致國用不敷, 深爲不可. 須痛懲之. 人囚代納.’”

말벌이 날아와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수액을 빨아먹는 모습에서 느낀 분노에서 착안하여 우의(寓意)한 것이다.³⁷⁾ ‘말벌’-‘꿀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비의한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부지런히 꿀을 따 겨울을 대비하는 꿀벌을 죽이고 꿀을 갈취하는 말벌의 잔인한 면모에서 간악한 아전과 민의 관계를 유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김종직이 기생적 존재에 대한 공격성을 이처럼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은 다소 이례적인 면모이다. 이처럼 사는 단호하게 간악한 아전을 제어하여 그들의 농간으로부터 민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김종직은 안정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민의 고통을 체화하는 과정에서, 민이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하기만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목도하였다. 세금을 갚기 위해 품팔이를 시도하는 것[<催糶吏>]은 도리어 다행이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강도짓을 하거나 난을 일으키기도 하고, 생존본능에 따라 국가에 비협조적으로 굴기도 하는 것이다.

晨抱籬籬竿	새벽녘 긴 낚싯대 들고
步至凝川岸	응천 기슭에 갔는데
岸傍有白骨	물가에 백골 한 구
草莽爲之攢	풀더미에 가려져 있네
頭臚淪別地	해골은 물에 잠겨 떨어져 있으니
吁嗟離巨幹	아아! 육신이 분리되었구나
借問釣魚翁	고기 잡는 노옹에게
斯人死何難	“이 사람은 어찌다 이리 험히 죽었소?” 물으니
翁言名大平	노인이 말한다. “저 놈 이름은 대평입니다.
聖化殊抵捍	성상의 교화에 유달리 저항하며
穴壁伺昏夜	소굴에 숨어 밤 이슬하길 엿보다
祛篋得錢貫	상자를 뒤져 돈궤미를 훔치고
頑然攘馬牛	우악스레 우마를 훔쳐내어
屠宰無忌憚	거리낌 없이 도살하며
白日肆票掠	백주대낮에도 대놓고 노략질 하니

37) 『회당고』, 766~768면. “俗以蜂之最大者, 號馬蜂. 次者爲牛蜂. 其種本異. 余嘗讀書松陰有一馬蜂來止矮松咬齧松皮, 皮盡液泣, 遂嗚之. 其狀甚恣, 因取杖拉殺之, 俄有數箇來, 亦殺之. 因作此寓意云. 時甲戌春三月日.”

每每驚里閉
 涅臂未能禁
 卓爲群盜冠
 爲盜苦未已
 一朝入於犴
 繫頸磔此野
 忽然身首判
 而我聞翁言
 俯睨愴然嘆
 爾亦天生民
 物則不可亂
 廉恥已遠喪
 正性日離散
 殘爾父母體
 罪惡未堪筭
 天道固不僭
 作孽難逃追
 生有盜賊名
 死復棄水泮
 掩骼縱有令
 留與凡民看

매번 온 마을 놀라게 했습지요
 자자(刺字)해도 끝내
 떼도둑 두목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지요
 도둑질을 끊임없이 하다가
 어느 날 감옥에 갇혔는데
 결국 목을 묶어다 이 들에서 베어버리니
 순식간에 머리와 몸이 갈렸지요.”
 나는 노인의 말을 듣고는
 고개 숙이며 망연히 탄식하였네
 너도 하늘이 낸 백성이니
 다른 백성들을 어지럽혀서는 안 되거늘
 염치를 너무나도 잃어버리고
 올바른 본성도 날로 흩어졌구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 짓이겨졌으니
 그 죄악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구나
 천도는 본래 어긋나지 않으니
 사람이 만든 재앙은 피할 길 없도다
 살아서는 도적이라는 오명 얻었고
 죽어서도 끝내 물가에 버려졌으니
 비록 해골을 묻어주라는 명령이 있었으나
 그대로 남겨져 온 백성의 본보기 되었네

이 시는 <응천 물가에서 도적 대평의 유해를 보고[凝川岸上, 見盜大平骸]>³⁸⁾라는 작품으로 밀양에 있을 때 지은 것이다. 새벽녘 낚시를 하러 물가에 나갔던 김중직의 시선에 돌연 그대로 노출된 백골 시신이 포착된다. 김중직은 묻혀있지 않을 뿐 아니라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채 버려진 시신의 처참한 모습에 의문을 품고 고기 잡는 노인에게 그 사연을 물었다. 『예기』에 따르면 초봄에는 농사를 준비하고 하늘의 화기(和氣)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길가에 버려진 해골이나 시신을 거두어 매장해준다.³⁹⁾ 나라에서도

38) 『회당고』, 751면.

39) 『禮記』, <月令>, “孟春之月(…) 禁止伐木, 毋覆巢, 毋殺孩蟲胎夭飛鳥, 毋靡, 毋卵. 毋聚大眾, 毋置城郭. 掩骼埋胔. 是月也, 不可以稱兵, 稱兵必天殃.”

이런 고제에 따라 가뭄이 심할 때 반드시 시신을 거두어 전염병을 방지하고 민심을 안정시킨다.⁴⁰⁾ 그러나 민은 대평의 강도무리에게 당한 피해에 화풀이라도 하듯, 그의 시신을 묻어 주지 않았다. 그러한 대평을 바라보는 김종직의 시선은 분명 민이물칙을 어긴 무지한 민에 대한 냉정함이 아니라 안타까움[俯睨愴然嘆]이다.⁴¹⁾

시에 따르면 대평은 밀양 일대에서 민가를 약탈하고 무리를 이루어 강도짓을 하던 도둑이다. 실록에 1445년 밀양의 강도 대평을 참수하였다는 기사가 있으나 자세한 사연은 전하지 않는다.⁴²⁾ ‘涅臂’란 재벌을 낮추고 관(官)에서 범 죄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초범의 경우 오른팔에, 재범의 경우 왼팔에 죄명을 자자하는 형벌을 가리킨다.⁴³⁾ 곧 대평이 한두 차례 강도짓을 한 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는 동안 밀양 관아에서는 끝내 백주대낮의 도둑질도, 백성들을 겁박하고 군도가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도 막지 못하였다.

김종직은 노인의 말을 듣고, 일차적으로 대평이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 평생 도둑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한 채 다른 백성들에게 공포와 교훈의 대상으로 박제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함으로써 그 부모에게까지 불효를 저질렀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대평이 비록 강도가 되기는 하였지만, 그에게도 하늘이 모든 백성에게 품부한 선한 본성[正性]과 염치가 있었다고 말한다.⁴⁴⁾ 바른 본성을

40) 『세종실록』 권40, 1428년(세종 10) 윤4월 4일, “禮曹啓: ‘今當農月, 雨澤愆期, 將來可慮. 請申明修溝壑, 淨阡陌, 審理冤獄, 賑恤窮乏, 掩骼埋胔等事.’ 從之.”; 권89권, 1440년(세종 22) 4월 18일, “議政府據禮曹呈啓: ‘今當農事方興, 雨澤愆期, 將來可慮. 依古制修溝壑淨阡陌, 審理冤獄, 賑恤窮乏, 掩骼埋胔.’ 從之.”

41) 정경주 선생님 역시 이 시의 제목을 거론한 바 있다. 김종직은 도적질이나 반역, 음란 등으로 풍속을 해치는 반인륜 행위를 비판하고 있으며, 그 근저에는 사회의 부조리와 병폐가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며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인간관계의 미덕이 결여된 데서 비롯된다고 보는 김종직의 성리학적 윤리관이 놓여 있다고 분석한 바 있어 참고가 된다. 정경주, 앞의 논문, 83면.

42) 『세종실록』 권109, 1445년(세종 27) 7월 21일, “刑曹啓: ‘平安道平壤囚強盜閔無豆, 甌山囚強盜車莫同, 咸吉道端川囚強盜石留等二人, 慶尙道密陽囚強盜大平等二人, 依律處斬.’ 從之.”

43) 『세종실록』 권19, 1423년(세종 5), 1월 9일, “刑曹啓: ‘今竊盜三犯者, 須據赦後刺字爲坐, 然律文內只有竊盜初犯右小臂膊上, 再犯左小臂膊上, 而不載赦後仍更爲盜者刺處. 按元史刑法志: ‘諸竊盜初犯刺左臂, 再犯刺右臂, 三犯刺項. 強盜初犯刺項, 諸累犯竊盜, 左右項臂刺徧, 而再犯者, 於項上空處刺之.’ 乞依元史, 左右臂肘後, 項後刺字, 以考赦後更犯.’ 從之.”

44) 이러한 인식은 조선전기 사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바이다. 고려말부터 조선전기의 사인들이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끝내 그것을 제대로 발현하거나 악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여 죽고 말았다는 것이다. ‘作孽難逃道’은 『서경』(<태감중>)에서 “하늘이 내린 재앙은 그래도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없다[天作孽猶可違，自作孽不可道]”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이와 비슷하게, <둘째형과 함께 서산에 올라[同仲兄遊陟西山]>⁴⁵⁾라는 작품에서는 고려대에 밀양에서 일어났던 방보(方甫)·계년(桂年)·박평(朴平) 등의 반란을 회상하고 있는데,⁴⁶⁾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밀양을 반란의 고을이라는 오명으로 더럽힌 이 사건의 현장을 산에서 내려다보며 김중직은 서글픈 감정[有懷昔年事，舉目情悽惘]을 느낀다.

綠林群盜起	녹림에서 도적들이 일어나
海徼染腥膻	바다까지 피비린내로 물들었네
郡人敢跳踉	고을 사람들도 감히 날뛰며
嘯聚叢戈鋌	휘파람을 불며 무기를 모으고는
潢池偷一息	황지를 단숨에 훔쳐
鳴噪如螭蟻	매미처럼 시끄럽게 하였네

김중직은 반란군을 ‘매미[螭蟻]’에 비유하고는 있지만, ‘綠林’, ‘潢池’ 등의 표현을 통해 그들을 구제불능의 간민(奸民)으로 규정하지만은 않았다. ‘녹림’은 중국 형주(荊州)의 산으로, 이곳에서 굶주린 민이 반란군에 동조하여 강도가 되었다. ‘황지’ 역시 같은 이유로 농민들이 반란군에 가담한 사건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한나라의 어진 관리 중 한 명인 공수(龔遂)가 그들에 대해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는데도 관리들이 그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其民困于飢寒，而吏不恤]’⁴⁷⁾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김중직의 시선 속에서 민은 삶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사와 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얼마든지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

孟子的 성선설에 입각한 인간관을 지녔음에 대해서는 이석규, 『조선 전기 민본사상과 민』, 국학자료원, 2020, 180~185면; 안득용, 『虛白堂 成侃의 政治思想 一考』, 『어문논집』 88, 민족어문학회, 2020, 79~80면 참고.

45) 『회당고』, 753~754면.

46) 『고려사절요』 권19, <元宗順孝大王二-1271년조> 참고.

47) 『漢書』 <龔遂傳>.

어날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러한 존재들의 시화는 다른 문인들의 애민사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⁴⁸⁾ 나아가 그것이 스스로의 본성을 제어하지 못한 일탈적 개인의 문제인 것만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백성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사'와 '관'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진전된 애민의식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此方亦被徵	이 고을에서도 징병하게 되어
田里盡輟耕	마을마다 농사 그만두게 하니
爺孃及妻子	부모와 처자식들은 모두
攔道冤號聲	길을 막고 원통함을 호소하네
健士尙疾首	건강한 사람도 고통이 크네
羸者胡得寧	노약자라고 어찌 편안할 수 있으랴
爭言磨天嶺	다투어 말하기를 “마천령이
化作長平坑	생매장 구덩이가 될 것이니
生還未可卜	살아 돌아옴을 기약할 수 없는데
況望奇功成	하물며 공 세우기를 바라겠수?”
不顧簡書嚴	엄한 군령도 돌아보지 않고
百計竄其名	온갖 꾀로 군적에서 이름 빼내려 하니
傳毒腫手足	독을 발라 손발을 붓게도 하고
瞪目稱雀盲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핑계대기도 하네

이 시는 1467년 7월,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각도에서 군사를 징발하는 업무를 하던 시기에 창작한 <예천에서 절도사와 함께 군대를 점고하다[體泉與節度使點兵]>(『점필재집』시집 권3)라는 작품이다. 별안간 역적을 토벌하는 일에 동원된 예천의 백성들은 무서운 기세의 역적 무리와 싸우다 개죽음을 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급기야 어미와 아내를 아들을 군적에서 빼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장정들은 징병을 회피하기 위해 장애와 질병을 가장(假裝)하는 현실이 펼쳐진다. ‘長平坑’은 전국시대 진나라의 군대가 조괄(趙括)의 군사를 격파한 뒤, 장평에 조괄의 군대

48) 이규보의 <八月五日, 聞羣盜漸熾>(『동국이상국집』전집 권6)에서는 군도에 의한 무고한 민의 희생에 대한 비판이 그려질 뿐, 군도에 대한 연민이나 군도가 일어난 원인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40만 명을 생매장한 고사(『사기』 <조세가(趙世家)>)로서, 반란군의 기세에 백성들이 폐죽음을 당할 것임을 비유한 것이다. 김종직은 이 부조리극 같은 광경을 보이는 그대로 묘사하며, 민이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징병을 거부하는 것은 승산 없는 싸움을 감당하지 못하기[良由力難任] 때문이라고 보았다. 삶을 도모하려는 그들의 생존본능이자 인지상정이라는 것이다. 막부에서 김종직은 그러한 심정에 누구보다도 공감하며, 불필요한 징병으로 인해 초래될 무고한 인명의 손실⁴⁹⁾과 명분 없는 징병의 결말을 예측하며 부득이하게 징발의 임무를 담당하게 된 자신의 처지에 대해 괴로움을 토로[我時忝慕府, 扼腕心忡忡]한다. 이미 김종직에게 ‘사’라는 존재는 민이 쓸모없는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책임감을 수반한 존재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⁵⁰⁾

千里囊箱阻	천 리 타향에서 재능이 막혔는데
秋來汝腹飢	가을까지 오자 너는 배를 곯았지
艱難不相保	어려울 때 보호해주지 못하니
義分忽如遺	분의가 쉽게 실추되는구나
旣怯樵蘇力	땀감 베는 것도 힘들고
兼妨出入時	외출도 어렵다
唯應怨造物	그저 조물주를 원망해야지
不與下愚移	下愚는 변화시킬 수 없게 하였으니

이 시는 1465년(세조11) 가을에 지은 <노비 금삼이 도망갔다[奴金三亡命]>(『점필재집』 시집 권1)라는 작품이다. 당시 김종직은 승문원 재직 중 세조에게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파직되었는데, 그해 봄 밀양에 잠시 돌아갔다 다시 서울로 올라와 후일을 도모하고 있었다.⁵¹⁾ 그렇지만 그는 오랜 실직과 타향살이로 인해 가족들의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친구들이 원조해 줄 정도로 극심한 궁핍을 겪고 있었을 뿐 아니라,⁵²⁾ 심리적

49) 이원길, 앞의 책, 142~144면.

50) 김종직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립한 ‘사-민’의 관계는 민에 대한 사의 우위와 시혜적 입장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권위적인 시각은 잘 보이지 않는 듯하다.

51)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 『김종직 산문 연구-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는문, 2017, 26면 참고.

으로도 대단히 실의한 상태였다.⁵³⁾ 1구에서 '재능이 막혔다[囊箱阻]'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정황과 관련된 표현이다.

주변인들의 원조에 의지하여 근근이 서울살이를 이어가지만, 가을이 오자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금삼이 끝내 도주하였다. 시 자체만 놓고 볼 때, 4구의 '義分忽如遺'와 8구의 '不與下愚移'⁵⁴⁾와 같은 표현은 주인을 곁에서 보좌하지 않고 분의를 저버린 노비에 대한 원망과 비난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정적 삶을 영위하고 싶은 민의 본능과 그것을 지켜줄 주체로서 '사'의 능동적 각성에 대한 강조를 고려할 때, 이 부분은 김종직이 설정한 '사-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유념할 만한 대목으로 새롭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3구에서 김종직은 주인인 자신과 노비인 금삼의 관계를 '어려울 때도 서로 보호해주는[相保]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주인은 노비가 배곯지 않도록 보호하고, 노비는 5구와 6구에 명시되어 있듯 주인을 곁에서 자잘하게 수발하며 일상생활의 편의를 돕는다. 그것이 바로 주인과 노비라는 '명분'을 지닌 자들이 각자의 지위에서 지켜야 할 '의무'[義分]이다. 그런데 상기한 사연으로 인해 김종직은 자신의 노비가 굶주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금삼은 자기 삶이라도 영위하기 위해 도주를 감행한 것이다.

김종직은 오랜 실직의 상황 속에 언젠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 예견이라도 한 듯 노비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스스로 떨감을 구하고 출입하며 자생해보려 하지만, 도와주는 노비가 없으니 이런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쉽게 해낼 수 없다는 막막함과 무능력한 사의 처지만이 자각될 뿐이다. 자신이 금삼에게 시혜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은 당장 그가 없으면 소소한 생활조차 제대로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로 그에게

52) 김종직, 『점필재집』 시집 권1, <鄭弼善孝常遊洪濟院僕無奴馬不赴作詩以寄>, “但恨旅食來, 鬼笑什一謀. 雖云併日炊, 樵僕無時休. 馬閑少莖秣, 虺隤不任驪.”; 위의 책, <謝任參判惠米周急托言釀酒之費>, “公今指糜憐吾道, 笑殺山妻面復光.” 특히 ‘雖云併日炊, 樵僕無時休’라고 한 표현에서 쌀이 없어 노복이 취사 자체를 하지 못하는 궁색한 상황이 잘 드러나는데 이러한 정황을 통해 극심한 궁핍이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53) 김종직, 『점필재집』 시집 권1, <東武吟, 擬太白樂府>, “華山不忍訣, 旅食久滯淫. 慈母附書至, 爾將繼故林. 胡將紕繆策, 明時空陸沈? 苟得三釜養, 是亦吾曾參. 服膺更激昂, 流淚何涔涔.”

54) 『論語』 <陽貨>, “唯上智與下愚不移.”

의존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원인은 전적으로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에게 있다. 8구에서 금삼을 구제불능의 ‘下愚’로 비난하는 대목은 기실, 고지식한 태도로 파직당하고 가솔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조가 덧씌워진 것이 아닐까?

요컨대 이 시는 젊은 시절부터 형성해 온 김종직의 ‘사-민’의 관계 설정이 가정이라는 좁은 범위에서나마 시험대에 올랐고 그것이 실패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확대해석해 보자면, 사는 민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할 때, 그 존재의의를 인정받는다. 그리하여 기한(飢寒)이나 재해의 상황에서 그들이 본성을 저버리고 유망하거나 강도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해야 한다. 민은 사와 관으로부터 그런 보호를 받는 대신 세금과 부역을 제공한다. 이것이 이 시에서 상정한 사-민의 분의와 상보적 사회구조이다.

그러나 사가 보호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민은 고통을 견디다 결국 자기의 살길을 도모하려 유랑, 죽음, 도둑질 등의 이탈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은 그가 거자 시절부터 밀양 등지에서 직접 목도한 현실이다. 김종직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노비 금삼의 도주를 통해, 사가 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사에게 초래되는 혼란과 곤란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그저 실의에 빠져있을 수만은 없음을 느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김종직은 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사’라는 자의식과 그 역할을 구체화할 수 있었으며, 이는 환로에 들어선 김종직이 사의 역할과 의무를 견지한 채 지방관의 자임과 지역 민생에의 지속적 주목 등 남들과 다른 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IV. 결론

이처럼 김종직은 오랜 기간 재해를 겪은 고향 밀양과 인근 지역의 민생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진정성 있는 밀착을 통해 민의 인정물태를 깊이 알 수 있었다. 『회당고』에 시화한 작품들이 그 관심의 깊이와 문제의식의 구

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거듭된 가뭄과 홍수로 인해 민이 끼니조차 제대로 잇지 못하고, 무능한 지방관의 묵인하에 아전들이 수취제도를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 그리하여 민이 어떤 이중고를 겪고 있는지 등의 참상을 모조리 포착하여 사실적 표현으로 시화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아버지 김숙자의 가르침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수취제도의 문제 및 개선점은 물론, 지방관이 현실을 얼마나 민첩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다방면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관찰사직 입지에서 벗어나, 민생의 질고를 예비관료이자 한 명의 사로서 자신이 당면한 문제로 인식하고, 사가 민의 생존본능을 지켜주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실천 강령과 책무의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반성적으로 성찰하였다. 민과 사는 상보적 관계이며, 그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감과 같은 감정적 차원의 동조를 넘어 날카로운 현실감각, 리에 대한 적극적 제어, 수취 및 환곡제도의 실질적 보완 등을 능동적으로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민생에 깊이 밀착한 경험이 사로서의 남다른 자각으로 발전되는 면모는, 김종직이 초기부터 견지한 애민의식의 장처라고 할 수 있다.

問今尙有甄家俗 문노니, 그곳에는 여전히 견훤의 집 풍속이 남아있던가?
赤子龍蛇亦甚難 순한 백성, 완악한 백성들 다스리긴 매우 어려우리
-<광주목사 박미를 전송하며[送光州朴牧使櫛]> (『점필재집』 시집 권16)

主張岳政古實難 관찰사 업무 수행하기란 옛날도 실로 어려웠지만
赤子龍蛇功十倍 순한 백성, 완악한 백성 모두 다스리면 그 공은 열 배라오
-<충청도로 가는 관찰사 최응현을 전송하며[送崔觀察使應賢巡忠淸道]>
(『점필재집』 시집 권23)

당나라의 문인 한유(韓愈)는 민이 순한 적자(赤子)가 될지, 매섭고 사나운 존재[龍蛇]가 될지는 사가 그들을 얼마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존중하고 보호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한 바 있다.⁵⁵⁾ 김종직은 이 한유의 글에서 감화 받아 위와 같은 시를 남겼다. 민은 갓난아이처럼 사랑하고 아끼며 보호

55) 韓愈, 『鄆州溪堂詩序』, “公之始至, 衆未孰化, 以武則忿以憾, 以恩則橫而肆. 一以爲赤子, 一以爲龍蛇, 憇心罷精, 磨以歲月, 然後致之難也.”

해야 하는 존재이지만, 안정적 삶을 영위하지 못할 때 그 본성을 버리고 흉포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위정자로서의 사는 그러한 민심과 물태를 민첩하게 파악하며 늘 각성된 존재여야 한다.

이 천지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앞서지도 뒤에 나지도 않는 같은 시기에, 같은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이 어찌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오방의 경계는 몹시도 단절되어 있고, 동서남북은 각자 존재하는 상황이니, 서로 만나 투합한다는 것은 정해진 때를 기약할 수 없는 범입니다. 그런데 이미 같은 세상을 함께 사는 것에도 또 한 나라에 같이 살고, 한 나라에 같이 살면서도 나아가 한 고을에 같이 산다면 그 어떤 행운이 이보다 더 크겠습니까? 자하도 ‘사해의 안에 사는 사람이 모두가 형제이다.’라고 하셨지요. 더구나 같은 나라에 태어나 같은 고을에 산다면 비록 같은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선왕께서 크고 작은 향리의 구역을 구획하고, 느릅나무를 심어서, 같은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드나들 때에 서로 짝을 삼아 돕고, 도적을 공동으로 방어하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돌보아 주면서 흔쾌히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교류하며, 찬란한 문채로써 서로 접촉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⁵⁶⁾

1482년 김종직이 가솔들을 이끌고 밀양으로 돌아왔을 때 지은 글의 일부이다. 장재(張載)의 ‘민포물여(民胞物與)’(『서명(西銘)』)와 상통하는 지점이 보이는 이 글은 비록 농민 이하의 민이 아닌 사를 대상으로 한 혐의가 없지 않으나, 분명 희박한 확률을 뚫고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엮인 사-민의 관계, 사가 민에 대해 가져야 할 인의(仁義)의 책임감과 진심 어린 애정을 엿보기에 부족함 없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김종직은 밀양의 다른 사들과 결의하여 의재(義財 ; 社倉)를 설립하는 데 뜻을 모은다. 의재는 관 주도의 환곡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나와 한 고을에 살게 된 형제 같은 민이 질병에 걸리거나 굶주릴 때, 사가 기꺼

56) 김종직, 『집필재집』 문집 권2, <密陽鄉社義財記>, “人於天壤間, 不先不後, 得同一世, 豈非幸耶? 然而五方區域之殊絕, 東西南北之自在, 與之遇合, 蓋無時而可期也. 既同一世, 而又同一國, 既同一國, 而又同一鄉, 其幸之幸, 孰大焉? 子夏有言曰: ‘四海之內, 皆兄弟.’ 況乎生同國處同鄉, 雖非同源共系之人, 其於情義, 爲何如哉? 是以先王畫閭比, 樹粉榆, 使之出入相友, 守望相助, 疾病相扶持, 驕然有恩以相交, 粲然有文以相接.”

이 사재를 희사하여 그들을 돕는다면 민 역시 자발적으로 농업에 최선을 다하며 기쁜 마음으로 사를 도울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김종직의 애민사상의 기저에서 만년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 정립된 그의 애민사상이 완전무결하다거나 일생에 걸쳐 굳건하게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역시 조선전기 다른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민에 대한 사의 우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것은 15세기의 사회 구조와 계급적 특성상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김종직은 수학기부터 민의 현실에 밀접한 채 습득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훗날 지방관으로서 균등 수취를 위한 지도지 편찬 등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임금에게 현행 백성 구휼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관개의 이로움을 진강하는 등의 활동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⁵⁷⁾ 이와 같은 측면에서 김종직이 초기부터 보여준 애민의식은 한국 애민시의 내적 전통에 새로운 디딤돌을 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본고는 초기의 애민의식이 이후의 작품세계에 구현되는 양상 및 조선 중후기 이후의 애민시의 계보와는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 상호비교하는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거나 해명하지 못했음을 한계로 밝힌다.

57) 이원걸, 앞의 책, 126면 및 156~162면; 『성종실록』 권194, 1486년(성종 17) 8월 4일, “同知事金宗直啓曰: ‘永安道去年凶荒太甚, 今雖小稔, 若遣量田敬差官, 則民間騷擾, 必有怨咨. 請待明年爲之.’”; 『성종실록』 권197, 1486년(성종 17) 11월 9일, “同知事金宗直啓曰: ‘聞百姓前年飢甚, 皆云: ‘非還上, 無以得生.’ 故今年皆盡心納官. 但戶曹請加忠清道稅, 此甚不可.’” 그 밖에도 김종직은 진휼을 위해 백성들의 세금을 경감 해줄 것을 성종에게 건의하거나 국가의 재정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 징수를 반대하는 청원을 여러 차례 올렸다는 기사를 실록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 『梅堂稿』, 계명한문학연구회연연구자료총서 『佔畢齋先生全書』4, 학민문화사, 1996.
- 『佔畢齋集』(한국고전번역원 DB)
- 점필재집 역주사업팀 역주, 『역주 점필재집』, 점필재, 2016.
- 허운만, 『점필재집』, 한국고전번역원, 2016.
-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DB)
- 『文淵閣 四庫全書』(DB)
- 김영봉, 『金宗直 詩文學 研究』, 이회, 2000.
- 이석규, 『조선 전기 민본사상과 민』, 국학자료원, 2020.
- 이원걸, 『金宗直의 풍교 시문학 연구』, 박이정, 2004.
- 구스모토 마사쓰구 저, 김병화·이혜경 역, 『송명유학사상사』(2쇄), 예문서원, 2009.
- 위잉스 저, 이원석 역, 『주희의 역사세계』 상, 글항아리, 2015.
- 강계훈, 『朝鮮 世祖代의 貢物代納政策』, 『조선시대사학보』 36, 조선시대사학회, 2006, 109~144면.
- 구슬아, 『김종직 산문 연구-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7, 1~387면.
- 김대중, 『“작은 존재”에 대한 성호 이익의 “감성적 인식”』, 『대동문화연구』 6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235~274면.
- _____, 『애도의 정치학』, 『한국고전연구』 3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285~323면.
- 김성규, 『15世紀 後半 士大夫文學의 몇 가지 傾向-成愼·金宗直·金時習의 現實主義的 詩文學에 關하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154면.
- 소순규, 『조선 세조대 공물 대납 公認의 정책적 맥락』, 『역사학연구』 72, 호남사학회, 2018, 33~66면.
- 안득용, 『虛白堂 成愼의 政治思想 一考』, 『어문논집』 88, 민족어문학회, 2020, 75~114면.
- 이상민, 『여말선초 덕형 질층과 유교 이념의 제도화 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23, 1~302면.
- 이원주, 『佔畢齋研究』, 『한국학논집』 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79, 1~51면.
- 이희목, 『佔畢齋 金宗直의 密陽 관련 詩에 대하여』, 『한문학보』 9, 우리한문학회,

2003, 37~59면.

정경주, 『조선조 禮樂文明과 점필재 金宗直의 위상』, 『점필재 김종직과 그의 젊은 제자들』, 인문사, 2011, 67~104면.

Re-examine Kim Jong-Jik's Early Poem of

'People's Love Consciousness'

- As Part of the Self-consciousness as a Scholar(士意識) -

Koo, Seul-Ah

This study re-examines the poems written by Kim Jong-Jik(金宗直) from his school days to the beginning of his bureaucratic life, and traces the process of expanding feelings of compassion and empathy for the people into self-consciousness of scholarship. When Kim Jong-Jik was a teenager studying in Miryang(密陽) and other places, the people of Yeongnam had difficulties in settling and living due to frequent natural disasters, and had to suffer from double trouble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tax system.

It is meaningful that Kim Jong-Jik said that the people's suffering began with institutional problems such as the collection and relief system and class problems such as the indifference of local public officials. To solve these problems, he asked questions about what policies local public officials closest to the people should pursue and what practical problems they are interested in, and sought answers.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Kim Jong-Jik imagines the existence of a scholar as one who not only protects the survival instinct of the people but also promotes mental stability, but is based o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other words, Kim Jong-Jik's public affection consciousness goes beyond an immediate level of closeness, empathy, and critical poetry to people's lives to establish the role and meaning of his existence as an active subject of compassion. In this regard, it can be evaluated that it has laid a new foothold in the inner tradition of poem about one's love for the people(愛民詩).

keywords: Kim Jong-Jik(金宗直), People's Love Consciousness(愛民思想),
Hoidang-gu(悔堂稿), Miryang(密陽), Scholar(士)

접수일자: 2024. 3. 31.

심사기간: 2024. 4. 1.~2024. 5. 10.

게재결정: 2024. 5. 10.

